



진명 스님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진명 스님의 법정 스님에 대한 회고기 밝아서 좋았다. 법을 공부하는 스님이기에 옳지 않고 스님을 추억하시는 것 같았다. 진명 스님을 통해 법정 스님의 물렸던 면을 참 많이 알았다. '나도 만약 법정 스님과 인연을 좀 더 맺었더라면 스님처럼 법정 스님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내내 들었다.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섬섬하지는 말고 / 좀 섬섬한 듯만 하게, //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 어디 내생에서라도 /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 연꽃/만나러 가는/바람이 아니라/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 옛그제 / 만나고 가는 바람이 아니라 / 한두 철 전 /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꼭 연꽃마지를 하러 떠났죠. 갈 때는 미담 서정주 선생 시 '연꽃 만나고 오는 바람같이'를 꼭 읊으면서 가곤 했어요. 백련이 지닌 깊은 기품을 스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법정 스님과 연꽃 마지를 가는 풍경을 떠올리는 진명 스님. 그 눈매에 법정 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

진명 스님은 법정 스님을 단발머리 소녀 때 출가를 결심하고 난 직후 송광사에서 처음 보았다. 출가해서 스님 찾아뵙고 "저 기억나세요?" 여쭙니 기억을 못하셨다. "머리 깎고 나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라며 깔깔대는 진명 스님은 소녀 같다. 강원 졸업반 때 도반과 법정 스님이 번역한 <수타니파타>와 <진리의 말씀>을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보시하려는 아무진 꿈을 갖고 불일암으로 스님을 찾았다. "스님께서 번역한 책을 저희들이 내레이션을 해서 포교에 쓰고 싶습니다"고 어렵사리 입을 댄 두

학생에게 흔쾌히 허락한 법정 스님은 "먼데까지 왔는데 국수나 먹고 가라"며 손수 국수를 삶아주셨다. 입맛을 다시며 맛있게 먹고 서둘러 큰 절로 내려가려는데 "밤이 깊었으니 아래 다실에서 자고 아침 일찍 가라"며 법정 스님이 불들어 세웠다. 그때 스님은 "요즘 운문사 소금 재고량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요즘은 저희 행편이 좀 나아져서 그만합니다"라고 답을 드렸다. 모두 어려웠을 때 얘기가. 그 뒤로도 법정 스님은 진명 스님을 보면 가끔씩 운문사 소금 안부를 물었다. 웃자고 한 얘기. 그도 이제는 다 지나간 옛이야기다. 지난여름 나그네들이 운문사 취재를 다녀왔는데 음식 맛이 '선열(禪悅)' 그 자체였다.

무안이비설신의... 출가
절집에서 가장 어려서온 물음이 스님이 출가한 까닭을 묻는 일이다. 당시 좋아서 한 출가. 그 까닭을 묻는 게 딱한 일인 줄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하. 옛날엔 그렇게 물으면 참 싫더군요. 사귀던 사람이 떠나서 출가했나? 호기심어린 눈길로 묻기 때문에." 어려서 품지 않아 부모님 속께나 썩인 진명 스님은 중학교 3년 동안 절반은 학교엔 못 갔다.

"링거를 딱 뚫고 있으면 심심하다고 문을 열어줘요. 문밖으로 가을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릿했어. 왜 가을이면 나뭇잎이 지나? 저 나무는 언제부터 저러고 서 있었나? 저 바위는 언제부터 저기 있었을까? 저 바위목숨은 언제 다 할까?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왜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 모두 근원을 향한 물음. 세상 현상이 두루 궁금했던 소녀는 불교 책을 사 본다. 그렇게 만난 <반야심경>. 그 가운데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에서 딱 걸렸다. "나는 눈코 입귀가 다 있는데 왜 부처님은 없다고 하셨을까?" 그게 큰 숙제였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다 보니 <천수경>도 외우고, <초발심자경문> 가운데 초심, 발심을 다 외웠다. "그즈음 아주 생생한 꿈을 꿴어요. 꿈에 두 스님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두 분 스님과 지리산 정상에 오르는 꿈. 힘겹게 오른 정상은 마치 연화장 세계 같았다. 한 분은 칠불사 주지 스님이라고 했고, 한 분은 송광사 스님이라고 했다. 그 뒤 프랑스 비구니 스님인 성일 스님과 인연이 되어 송광사를 찾았던 진명 스님. 하마터면 뒤로 자빠질 뻔했다. 꿈에 본 송광사 스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가. 그 스님이 바로 법정 스님이 몹시 편찮으시

다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안거 중인데도 하동 토굴에서 단결음에 김상사로 달려온 도현 스님이였다. 너무 앓다보니 의사가 되고 왔던 소녀는 도현 스님을 뵈는 순간 그 선선한 기운에 취해 "정신을 고치는 의사가 으뜸"이라는 생각에 출가를 결심한다. "아버지가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나중에는 '참 잘했다'며 그윽하게 바라보지만, 그때는 눈에서 불이 튀었어요." 아버지를 막아선 사람은 할머니였다. "내가 육신 평생 살아보니까, 지 좋은 거 하고 사는 놈이 장명이다. 여자 인생 뭐 별거 있나? 보내 줘라. 지하고 싶어하는 대로." 할머니가 최고 아군이었다. "나는 엄마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다"고 외쳤던 소녀는 운문사에서 머리를 깎았다. 20세기 끝 무렵 수행자를 향한 대중 욕구는 높아만 갔다. 수행자 생활방식은 옛 그대로지만, 인천 스승(人天師)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 교학체제나 논리체제가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든 진명 스님. 승가대학 4년을 마친 지 한참 지나 다시 대학에 들어간다. 1992년. 대학 1학년생 진명 스님을 만난 법정 스님은 "진명이는 왜 대학을 다시 갔나? 학자가 되고 싶어서인가? 수행을 잘하고 싶어서인가?" 고 물었다. 후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내가 학비를 좀 도와줘야겠다" 하셨다. 그리고 94년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문을 열자, 법정 스님은 운문사 회계를 맡았던 진명 스님을 불러 살림살이를 맡긴다. "공부 마치고 선방으로 바로 갈 계획이었는데 그만..."은 해를 갚는 일로 인생행로가 바뀌었는데 후회는 없을까? "세상 모든 일이 자기와 인연이죠. 스님께 장학금을 받지 않았어도 서울에서 수도승으로 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지만 그게 내 할 일이었지요. 후회는 없어요." 과연, 수도승다운 말씀이다.

"<새들이 떠난 숲은 적막하다>, <버리고 떠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인지를 다 적었거든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적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한 장 한 장 살펴보고는 '이거 적을 때 정신이 어디 갔었어!' 하시며 조금만 비뚤어져도 난 라이신 거예요."

운문사 명성 스님 별호가 0.1mm인데 법정 스님도 그 못지않으시다. 스승 마음은 다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 뒤로 진명 스님은 인지에 도장을 찍을 때 정신일도(精神一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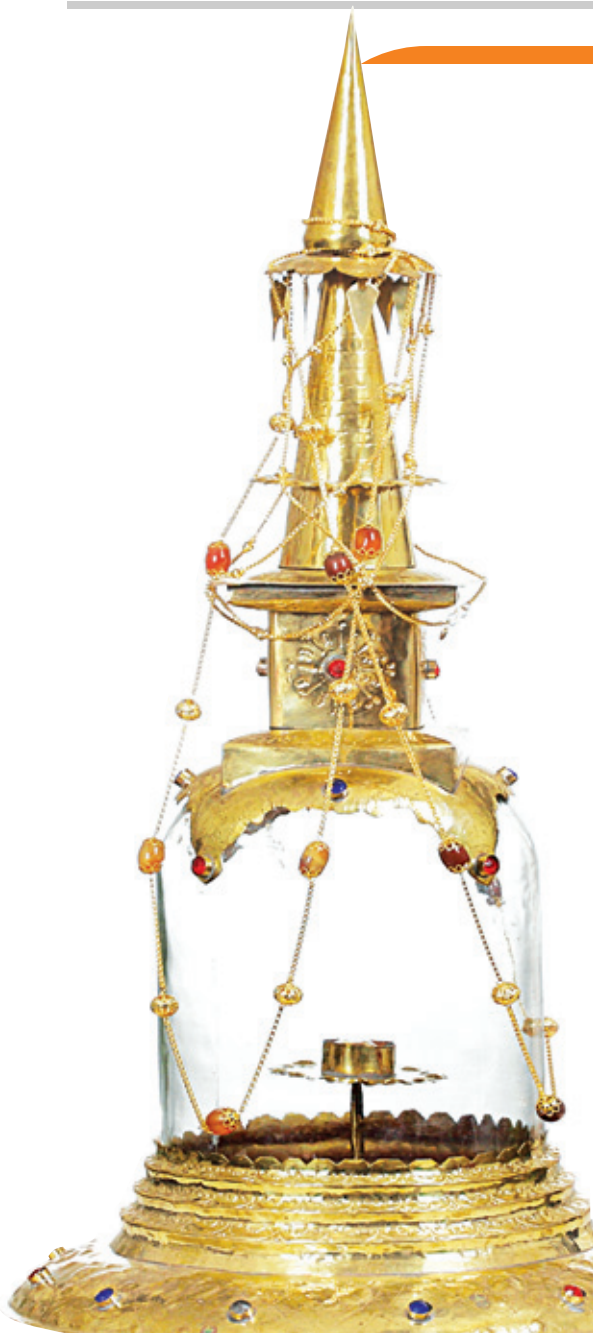
"나만큼 정확하게 찍은 사람도 없을 거야. 다 찍고 나니까 스님이 '진명이 애썼다'면서 몽블랑만년 필을 제게 주셨어요.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두 개를 가지면 하나를 가졌을 때 애뜻함이 사라진다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향을 하세요."

달 같은 해, 해 같은 달

진명 스님은 법정 스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다. 불일암 가는 차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로 "스님, 계십니까!"하고 들이타치는 사람들에게 느닷없는 낭패를 본 법정 스님이 "정진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스님 계십니까!'하고 소리를 질러내니 참기 힘들어"하셨다. 말씀 끝났다가 무섭게 "스님! 그게 싫으시면 글 쓰지 마세요. 글을 쓴다는 건 사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어렵사리 찾아오는 건데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하고 퇴박을 줬다.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을 진행하던 고운 스님이 아니다. 테러! 진명 스님은 테러리스트다. 스님 반응은 어떠셨을까? 법정 스님은 "그래. 진명이 말이 맞다"며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역시 큰 어른.

진명 스님이 맑고향기롭게 회원 화합차원에서 수련회를 운문사에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올렸을 때 법정 스님은 "번거롭게 하지 마라. 운문사는 그렇지 않아도 울려도 많은데 스님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며 완곡하게 반대했다. 진명 스님은 굴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회원을 이끄는 사람들을 모아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줘야합니다. 맑고향기롭게 정신을 펼치는 게 우리 일인데 반대를 하시면 사무국에선 뭘 하라는 말이나"며 거듭 말씀드렸다. 겨우 승낙을 얻어낸 진명 스님. 이번에는 법정 스님도 버스를 같이 타고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법정 스님은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며 고개를 가웃거리시는데, 진명 스님은 테러리스트답게 "오가면서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셔야 합니다"고 세계 나왔다.

회향길. 도에가 지한 선생 부인 조남숙 여사가 뒷자리에서 "스님, 우리 동료 부르기 해요"하며 소풍길 소녀처럼 조금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스님은 빙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성골사리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봉행된 국제보살계 행사에 스리랑카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말씀과 함께 스리랑카 8개부서 장관님들이 선물로 보내온 진신성골사리입니다.



천령정골 (天靈頂骨)

천령정골은 염주라기보다는 아라한과를 증득한 나한들의 사리(舍利)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티베트에서 오랜 세월을 수행 정진한 라마승이 열반할 때 다비(荼毘)를 하기전에 이마에 있는 미간의 뼈를 깎아서 만든 것인데 108개의 염주알이 되기까지는 2천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령정골 염주는 라마승 108사람의 이마의 뼈를 다듬어서 만들어진 것이라 108명의 라마승들이 대를 이으며 열반하기 전까지 한가지씩 원(願)을 세우고 수행 정진했기 때문에 108대원(大願)이 스며있는 불가사의한 세계의 단 하나뿐인 무가보(無價寶)의 성물(聖物)입니다.

친) 세계의 단 하나뿐인 무가보의 성물 천령정골 (경) 스리랑카의 대통령으로부터 기증받은 성물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성골사리

친견시간 :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社)大願佛敎曹溪宗 宗正 淨山 靑峰

삼보에 귀의하옵고 가내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사에 모신 천령정골과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성골사리의 친견하시어 불자님의 업장소멸과 소원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범어

부처님 자비광명 비추는 곳을 따라 활짝 피어나 성스러운 연꽃이여 맑고도 고요로운 지혜의 눈길 따라 八萬四千 지옥이 텅 비어 버렸네 더더욱 신령스런 대미신주 힘입어 중생이 부처됨은 순식간이라네 慈光處處蓮化出 慧眼觀時地獄空 又況大悲神呪力 衆生成佛剎那中

(社)大願佛敎曹溪宗 총본산 불광사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 055)364-4747, 070-4187-4747 / 팩스 055)364-4849